

예장웨신, 제17대 총회장 이·취임감사예배 드려

함께 감사다, 섬김시다, 개혁합시다, 조화롭게 평화롭게 감사다.



▲ 축사와 격려사를 하시는 목사님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는 지난 11월 7일 오전 10시30분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3길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2층)에서 웨신 제17대(제102회기) 총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제1부 예배, 제2부 이·취임식, 제3부 오찬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예배는 제1부총회장 오상열 목사의 인도로 서기 박정균 목사가 기도록, 회의록서기 임용선 목사가 성경봉독(시 18:1-3)을, 찬양에 연합노회 김미라 목사가 독창을 하고, 증경총회장 이홍규 목사는 "새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제2부 이·취임식에서 제2부총

회장 신언창 목사(대외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직전총회장 이영풍 목사의 이임사를 전하고, 이임하는 총회장과 총무에게 신임총회장 허창범 목사가 공로패를 전달하고, 총회임원일동이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어 총무 박우재 목사가 취임총회장 약력 및 임원을 소개했으며, 제3부총회장 김영환 목사의 취임기도를 했다.

이어 신임총회장 허창범 목사가 취임사를 전했으며, 직전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신임총회장 허창범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신임총회장은 총회 임원들과 감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하고 가장



▲ 총회장 허창범 목사와 사모

어려운 시기에 총회를 안정적으로 수습하고 교단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온 직전총회장 이영풍 목사와 총무 신언창 목사에게 총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금반지 5돈을 손가락에 끼워주며 포용하면서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꽃다발을 증정하고, 호남노회 윤석희 목사는 축하를 했다. 이어 한서노회장 김기출 목사, 호남노회장 박정균 목사, 광주푸른솔교회 성도들이 신임 총회장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또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설립자 나원 목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장 박철규 목사, 증경총회장 이동희 목사 등

이 축사를, 한국개신교부흥사회의 회 대표회장 김병서 목사, 원로 이규 목사가 격려사를 전하고, 증경총회장 신동근 목사가 축도를, 총무 박우재 목사의 광고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3부 오찬을 끝으로 전 부총회장 하중우 목사의 오찬기도로 축하와 덕담으로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총회장이 되겠다.

이날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취임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정 제102회기 웨신총회 17대 총회장에 취임하게 됨을

웨신총회,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와 MOU 맺어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하나님 나라확장을 위해 한뜻 모아

웨신총회(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지난 10월 30일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실에서 본원 목회대학원 및 각종 과정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총회장 허창범 목사와 학교 설립자 나원 박사, 총장 안성삼 박사는 양측의 3차례 회동과 협의를 거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과 함께 상호발전과 협력을 위하여 먼저 메인협정을 체결하고 세부적인 각종 과정의 개설과 운영을 위한 추가협약을 가졌다.

총회와 학교는 개혁주의에 기초한 보수신학과 신앙노선을 따르며 작금의 한국교회의 실추된 위상과 기회회복을 위하여 목회자의 재교육 과정과 현장사역의 실제적 도움이 되는 각종 과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보다 성숙한 차원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이다. 총회는 학교발전을 위하여 학생들을 적극 추천하며 학교에서 배출되는 졸업생들은 총회에



서 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총회와 학교는 상호 발전과 유익을 위하여 목회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목회대학원과정 및 각종 자격과정과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Care Giver 자격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각종 자격과정(심리성경적상담사, 가족상담사, 심리상담사, 인성지도교육사)프로그램을 학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총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사)한국상담교육발전협의회에

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학교는 총장 명의로 수료증을 교부한다.

또한 총회신학 지방신학교 졸업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 명의로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는 개혁주의 신학노선을 따르는 유능한 학교 및 지도자 교육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증대시켜 교단발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신교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흠어진 웨신의 가족과 형제들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 교단의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만장일치로 총회장에 추대해주신 총회신학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총회장이 되겠습니다. IC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편안하게 전해 질 수 있도록 바른 신학, 바른 복음, 바른 신앙, 바른 생각, 바른 생활하게 하는 총회가 되도록 개혁하는데 힘을 다할 것입니다.

더구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그리하여 Sola Gratia, Sola Fide, Sola Scriptura, Solus Christus, Soli Deo Gloria의 five Solas 캐치플레이어를 가지고 나 자신부터 개혁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통찰하고 개혁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총회를 세웁시다. 이제부터는 우리 총회가 국내외로 뻗어 나가며 부흥되고 성장

하도록 연합하고 하나 되는 운동을 펼치며 총회위상을 높이며 한국교회에서 사랑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감사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총회원 여러분 함께 감사다. 함께 섬김시다. 함께 개혁합시다. 한마음 한 뜻되어 조화롭고 평화롭게 감사다. 주님 안에서 이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운동을 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집시다. 여러분과 함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름답고 행복과 기쁨과 자부심이 넘치는 웨신총회를 세웁시다. 겸손한 자세로 미려한 종이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을 위한 총회의 충성된 가장 작은 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 취임사를 전하고 총회발전을 위하여 명품총회 표준총회로서 힘을 합쳐 나가자며

총회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총회장 허창범 목사의 프로필 국립공주사범대학 교육학과(교육사), 공신대학교 신학대학원(전 개혁신학원목회학석사과정), 고려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문학석사), 동대학원(교육학 박사), Bethany Divinity college & Seminary(신학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AMP 과정(목회자최고지도자과정) 2학기수료, 현) 사단법인 한국상담교육진흥 공임교수), 중간 생략, 현) 웨스트민스터 바울신학교 교장 및 필리핀 Pau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현) 바울국제부흥사역회의 총재, 현)광주푸른솔교회 담임목사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웨신) 제102회 총회장 허창범 목사, 임원일동(拜)

주제 : 창조적 믿음의 총회와 노회(사 43:19)

감사하므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축

추수감사절



허창범목사



이영풍 목사



오상열 목사



신언창 목사
(대외사무총장)



김영환 목사



총무 박우재 목사



박정균 목사



김정욱 목사



임용선 목사



조영신 목사



정순욱 목사



최돌이 목사

웨신 교단은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버팀목이자 교계의 표준인 웨신에 몸담고 영혼구원과 세계선교에 큰 꿈을 안고 비상한 모범총회이다.
따라서 본 교단에 뜻을 같이할 총회 및 노회, 개 교회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목사안수 및 교단 가입문의 : 010-8602-300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웨신총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01호
☎(02)835-2606-7 Fax (02)835-2068 http://ws21.org



예장웨신, 총회,노회 임원워크숍 가져

주제『창조적 믿음의 총회와 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는 지난 11월 6일(월)~7일(화)까지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소에서 2017년도 총회, 노회 임원워크숍에 이어 제 16대 총회장 이영종 목사의 이임 및 제 17대 총회장 허창범 목사의 취임식이 많은 교계 지도자들과 총회원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6일 오후 4시 행사에 앞서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총회발전을 위한 현안을 다루는 가운데 부총회장 겸 대외사무총장 신언창 목사는 지난 10월 30일 총회와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게 된 그간의 성과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이날 웨신총회는 총회장 허창범 목사, 부총회장 신언창 목사(대의사무총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설립자 나원 박사, 총장 안성삼 박사 등 약 40여 명의 화동과 협의를 거쳐 상호 존중과 발전과 협력을 위하여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아울러 웨신총회는 흠어진 웨신의 가족과 형제들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교단의 문호를 활짝 열어놓았다고 했다.

또한 웨신총회는 교단 마크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오는 12월부터 사용한다는 방침이며, 이 외 교단 발전을 위한 현안을 다루고 덕담을 나누었다.

이어 오후 6시 "창조적 믿음의 총회와 노회"라는 주제로 제2부총회장 신언창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고 서기 박정균 목사가 기도, 회의록서기 임용선 목사가 성경봉독(사 43:14~22)하고,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을 선포했다. 허 총회장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오늘 우리도 거룩한 백성들로서 거룩하고 능력 갖춘 주의 종들이 될 것을 강조하면서 목회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러



총회장 허창범 목사



부총회장 신언창 목사



총무 박우재 목사

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원했다.

이어 직전총회장 이영종 목사의 축도와 총무 박우재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강주일 목사의 저녁식사기도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저녁식사는 호남노회장 박정균 목사의 웅장한 대접이 있었다.

제1교시 특강 "목회자의 frame"

저녁 7시 서울노회/부회계 이재학 목사의 기도로 1교시 특강이 시작되어 강사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목회자의 frame"를 주제로 열강을 했다. 허 총회장은 행복한 목회, 신바람 나는 목회를 서론으로 1)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frame, 2) 행복을 결정하는 것? frame, 3) 접근 frame VS 회피 frame, 4) 틀 속에 갇힌 마음에 대해서, 5) 소유frame VS 존재frame, 6) 목회자로서 총회,노회 임원으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나의 frame?, [결언] Leader's frame을 가진 목회자로서 희망과 소망, 비전을 주고 더불어 함께 가면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바람직한 Leader로서의 목회자frame을 갖추고 섬기는 교회, 노회, 총회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며,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할 것을 기원했다.

제2교시 특강 신임총회임원 및 노회장에게 취임패 증정

이어 제2교시는 제2부총회장 신언창 목사의 진행으로 총회, 노회 Communication에서 허 총회장은 신가 있는 후 강주일 목사의 저녁식사기도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총회임원, 노회임원을 소개하고 청찬탈레이로 화기에애한 시간을 가졌다.

제3교시 특강 총회 및 노회 행정에 관해서...

제3교시에는 총회 및 노회 행정을 주제로 노회관리와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에 대해 총무 박우재 목사가 강사로 나서 1. 교회의 정치, 2. 회의의 진행법, 3. 노회의 기본예식 자료, 4. 노회의 기본행정 양식 자료에 대해 열강을 펼쳤지만 주어진 시간관계로 아쉽게도 내년을 기약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웨신총회(허창범 총회장)는 7일 오전 7시 폐회예배에서 제3부총회장 김영환 목사의 인도, 부서기 김정국 목사의 기도, 부회록서기 조영신 목사가 성경봉독을, 제1부총회장 오상렬 목사가 설교를 했으며, 증경총회장 이흥규 목사가 축도를, 총무 박우재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기념품 증정을 전달했다. 이어 경전노회 이정구 목사의 식사기도로 조찬을 즐기며 총회원 모두가 Communication을 통한 덕담으로 화기에애한 잠이되었다.

세주부협, 제13대 총재 여바울 목사

대표회장 전진성 목사 취임감사에배 드려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이하, 세주부협)는 지난 22일(월) 오전 11시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복된교회(여바울 목사)에서 많은 회원들, 축하객들의 축하를 받는 가운데 총재 여바울 목사, 대표회장 전진성 목사가 취임감사에배를 드렸다.

이날 상임회장 박연자 목사(광은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부총재 노은총 목사(은총기도원)가 기도, 최정아 목사가 성경봉독(창35:1-7)하고, 박연자 목사의 축가, 꾸미오리의 몸찬양이 이루어졌다. 이어 직전총재 하종우 목사는 "벧엘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하 목사는 "세주부협이 13년간 성장해오고 전국에 많은 회원들이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고 결단하는 세주부협원들이 되어 신앙 간증을 온 세계 땅 끝까지 다지며 복음전하며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며, 회복시키는 부흥사로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총재, 또는 대표회장이란



총재 여바울 목사

직함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전총재 하종우 목사는 신임총재 여바울 목사에게 취임패를, 직전대표회장 노은총 목사는 신임대표회장 전진성 목사에게 취임패를 수여하고, 박종주 목사는 사무총장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신임총재 여바울 목사는 '세계

주영광부흥사협의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로 13년째를 맞이하여 총재로 취임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회원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취임사를 했다.

또한 신임대표회장 전진성 목사의 취임인사를, 부총재 이재원 목사, 이준우 목사가 축사를, 감사단장 조현희 목사가 봉헌송을, 부총재 하성덕 목사가 봉헌기도를, 신임대표회장 전진성 목사의 축도로 세주부 제13주년을 기념하는 취임식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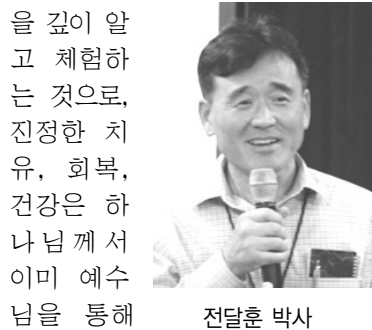
'GIFT'전인적 리더십 세미나

전인적 치유와 영적 리더십개발

새 시대에 필요한 'GIFT'전인적 리더십 세미나가 지난 4일 GBC미주복음방송에서 개최됐다. '전인적 리더십'에 관심 있는 자들이 참석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인적 리더십의 필요와 이해 △전인적 관점에서의 회복과 성숙 △몸과 마음의 연관성 △감정관리

결된 뇌의 기능 △감정에 대한 이해 및 관리법 △나와 타인의 행동 유형 발견방법 △하나가 되는 소통법 △기초 상담자식 △전인적 관점에서의 관계회복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강사인 전달훈 박사는 "크리스천의 성숙이란 나 자신과 하나님



전달훈 박사

을 깊이 알고 체험하는 것으로, 진정한 치유, 회복,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의 선물이다'며 "전인치유세미나를 통해 치유를 경험한 뒤 새 소망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 박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경험과 아픔을 통해서 자신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깊이 더 잘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함을 경험하는 훈련과정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특히, 치유 받고 일어서서, 십자가의 군병들로 나아가 있는 곳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153@christianvision.net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인: 이종진 목사 명인: 정지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지환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ntv@hanmail.net / jtntvcpi@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지환)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축 추수감사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시편 147편 7절)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담임목사 김창룡



성도목사 박영미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원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자리에 참여하십시오(고후 3장 17절)

예배 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가지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경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주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표어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9)



視務牧師 서명범

同事牧師 최봉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116동 206호

H·P010-8268-0092, 010-3710-9119

“나부터 정직, 청렴, 성결하겠습니다”

2017종교개혁500주년기념예배 개최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대회장 소강석 목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당회장)가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수형牧사는 “개신교는 1517년 마르틴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이미 개혁된 교회이지만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여야 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날마다 새롭고 새로워져야 한다”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본질 회복운동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사무총장 강현식 목사(평택순복음교회 당회장)가 기도, 정경양 목사(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가 성경봉독을 하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찬양대의 찬양 이후 대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당회장)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은 나 자신부터’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하였다.

소강석牧사는 “하늘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개혁자가 될 수 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나부터 개혁할 때 교회를 바로 세우게 된다”면서 “성령 충만으로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게 성경적 개혁의 퍼스트 무브가 되자”고 강조했다.

말씀 후 부대회장 이호선 목사(새서울순복음교회 당회장)의 인도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였고, 봉헌기도는 부대회장



권경환 목사(오산리기도원 원장),

기념사 민경배 목사(백석대학교 석좌교수), 개혁사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 개혁실천사 안준배 목사(세계성령중앙협의회 이사장)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안준배牧사는 개혁실천사에서 “한국교회 양대 중추적 지위인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청지기라는 것을 알고 부응해야 한다. 교회와 사업체의 위임된 목사, 장로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을 명확히 할 때 한국교회는 민족과 역사 속에 바르게 세

워진다”면서 “종교개혁500주년을 통하여 한국교회 상층부부터 회개하여야 한다. 나부터 정직해야 하고 나부터 청렴해야 하고 나부터 성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배의 끝에는 김창근 목사(서초순복음교회 담임)와 김종양선교사(스와질랜드기독교대학교 이사장)의 인도로 “나부터 정직하겠습니다, 나부터 청렴하겠습니다, 나부터 성결하겠습니다”라는 주제를 성도들과 함께 제창했고 삼일대회장 김용환 목사(서울순복음교회 원로)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한교연, 서울역광장서 사랑의 김장담그기&나누기 행사

김치 7000kg 노숙자급식소, 쪽방촌 등 가난한 이웃에 전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 지난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우리 사회 빈곤층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7000kg의 김장을 담그고 나누며 초겨울의 차가운 날씨를 훈훈하게 덤쥔다.

한교연 여성위원회(위원장 권복주 장로)가 주관한 2017 사랑의 김장담그기&나누기 행사에는 예장통합 대신 기성 호헌 등 한교연 회

원교단 여성위원들과 탈북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해 김장 7000kg을 담갔으며, 이를 10kg 700박스에 정성껏 포장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서울역 신생교회(김원일 목사) 노숙자 급식소인 해돋는 마을,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꿈나무(원장 박미자), 새생명태국인교회(홍광표선교사), 탈북민대안학교 하늘꿈학교(교장 김향자), 청소년 가정보호시설 선한사마리아공동체(김연수), 쪽방촌 노숙인 선교센터(이승진 목사)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었다. 특히 서울역 신생교회는 받은 김장김치 일부를 서울역 주변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에 전해주었다.

한교연이 해마다 초겨울에 진행해 온 김장나눔대축제는 올해로 3회째로 특별한 이번에는 지난 추석에 탈북민 초청 전방 안보견학

에 참가했던 탈북민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가를 신청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에 구슬땀을 흘림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개회예배는 여성위원장 권복주 장로의 사회로 박상진 권사의 기도, 문인순 권사의 성경봉독, 김예정 목사(신생교회)의 특송, 박위근 목사(증경대표회장)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어 김효중 목사(호헌 총회장)가 격려사를, 장한일 목사(해돋는 마을 이사장)가 축사를 전했다. 신생교회 김원일 목사가 인사한 후 박위근 목사의 축사로 마쳤다.

한교연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김순미 장로)와 기성 전국여전도회(회장 박명숙 권사), 신촌교회(조동천 목사), 여성위원장 권복주 장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학술세미나 ... '믿습니다' 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오류 반성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 서울 종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주말 송택규 박사

종교개혁은 현재도 진행 중이어야 한다. 그러나 꽤 많은 기독교인을 자처하면서 정작 변화는 철저히 거부하는 교인이 많다. 자신의 믿음은 추후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실행에는 옮기지 않는 성도 역시 헤아릴 수 없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학술 세미나가 오는 12월 7일(목)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관 4층 제2연수실에서 열린다. 개신교의 본질을 다시 고

민하고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을 회개하는 자리다.

이번 학술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송택규牧사는 ‘기독교는 응답하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주제로 강의한다. 송택규牧사는 JTNTV와 지저스타임즈에서 연재되고 있는 ‘성막 영성’을 주창한 주인공이다. 성막의 구성과 기능을 이해하면 믿음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과정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송택규牧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기독교는 응답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도 성막의 영성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개신교의 핵심으로 돌아가고 잠자고 있는 개신교가 깨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해야 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덕꾸러기가 되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대형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부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경받아야 할 교회 목회자들의 비리로 기독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슬픈 아픔이라고 한다.

500년 전 마르틴 루터는 사도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주장하며 개신교 탄생의 문을 열었다. 그야말로 혁명이었다. 송牧사는 이 와중에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말씀 중심으로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으

로 착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종교개혁은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 미완의 종교개혁이 되었다”고 했다.

사도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속에는 ‘행위’ 자체를 배제한 의미가 아니라 ‘행위’를 전제로 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송牧사는 말한다. 또한 교회가 ‘행위는 빠지고 믿음만 강조하다보니 믿습니까? 아멘, 하면 다 구원 얻는 것으로 잘못 인식시키게 됐다’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은 행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니라’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대표적 성경적 구절이 로마서 1:17절이다.

또 로마서 2:13절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니’라고 쓰여 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려면 믿음으로 가는 행위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도바울의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믿습니다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송牧사는 마태복음 7:21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그리스도가 직접 믿음의 실천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예수를 믿고 참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행위적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거듭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르게 된다. 이게 구원의 서정 또는 여정이라고 했다. 오는 12월 7일(목)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분사 대표 010-5468-6574로 문의바랍니다.

피종진 목사 11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1(수) 저녁 공주 한성행복교회(홍사라 목사) ☎ 010-5458-6040
제209차 해외성회(209th Overseas Assembly)
2(목)~3(금) 미국(U.S.A) KCCD(다민족세계기독교대회)이사장 박종대 목사) ☎(714)728-9191
4(토)~5(주) 미국(U.S.A) LA 소망성령교회(성요셉 목사) ☎(213)487-2481
6(월)~8(수) 미국(U.S.A) 오직예수선교회(신 생 목사) ☎(213)215-6029
9(목) 미국(U.S.A) LA 임마누엘선교회(백지영 목사) ☎(323)708-9191
10(금)~12(주) 미국(U.S.A) LA 갈보리선교회(상현은 목사) ☎(714)229-8492
18(토) 오후 원당드림교회(서상석 목사) ☎ 010-9913-0675
19(주일)~22(수) 이스라엘(Israel) 선교대회 ☎ 010-3443-1541
주최: 연세대학교총동문목회자부총협의회(총재 강영선 목사)
23(목)~25(토) 요르단(Jordan) 선교대회
27(월)~30(목) 일본(Japan) 나가사키 한일연합선교회 ☎ 010-4254-4047
주최: CBS방송국 한일연합선교회(CBS JAPAN 본부장 정재원)
27(월) 일본(Japan) 뉴카 엘리야로 신앙 부흥회
28(화)~29(수) 일본(Japan) 히로시마, 사세보 순교지 기도회 및 한일선교를 위한 문화교류

축 추수감사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시편 79: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창범
신학박사/교육학박사/예장웨신 총회장

부목사: 김미경 협동목사: 유한주, 양영석
사무장: 공재용, 안종기, 허성준, 함용호
협동장: 이창수

2020 VISION

광주에서 전 세계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전 1부 8:00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오후 1:3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새벽 5:00
금요철야: 저녁 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47(영무예다움 2차 후문 앞, 수완중 옆)
TEL: (062)953-4620 H/P: 010-8604-6075

2017년도 교회포어:
창조적 믿음을 갖자! (시43:19)

부산 바울선교신학연구원(사)한국상담교육발전협의회
부른솔협동조합(상담및대안교육전문)/부른솔노인복지센터

■ **靑松 건강칼럼 (603) 106세 現役醫師의 장수비결**

106세 의사의 삶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평생 현역’ 의사인 히노하라 시게아키(日野原重明) 박사가 지난 7월 18일 자택에서 둘째 아들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잠을 자듯 숨을 거뒀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창조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 인생에 은퇴는 없다.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땀 것이다.”라고 말했다. 100세가 넘어서도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하면서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어 준 히노하라 박사의 죽음에 일본 사회가 존경과 애정 어린 애도를 보냈다.

105.9세를 일기로 별세한 히노하라 박사는 1911년 10월 4일 야마구치(山口)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교토(京都)대학 의학부를 1937년에 졸업한 뒤 성누가국제병원(St. Luke’s International Hospital) 내과의로 의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내과과장, 병원장 등을 역임한 후 1966년부터는 명예병원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신노인회(Society of New Elder Citizens) 회장, 라이프 플랜닝센터 이사장 등을 맡아 활동하였다.

히노하라 선생이 전 생애를 바치다시피 근무한 성누가국제병원(聖路加國際病院)은 미국 루돌프 토이스러 박사가 개설한 병원으로 112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6층 건물 옥상에 십자가(十字架)가 세워져 있고 현관에 들어서면 예배당이 있다. 누가(Luke)는 의사이며,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성인(聖人)이다.

히노하라 박사의 신장은 162cm, 체중 63kg, BMI 24.2이며, 하루 섭취 열량을 1300kcal로 제한하는 소식(小食)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했다.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오전 6시30분 기상, 오전 8시 출근 후 각종 회의, 오후에는 강연 및 특별 외래진료, 저녁 6-9시 귀가, 밤 11시-새벽 2시까지 서류 정리나 글쓰기를 한다. 수면시간은 약 5시간이다. 국내외에서 연간 100회 이상 강연을 하며, 2시간 정도는 곳곳에서 강의를 했다.

히노하라 박사는 일본에 서양 의학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의료계 거물로서 ‘생활습관병(生活習慣病, life-style related disease)’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등 예방의학(豫防醫學,

preventive medicine) 발전을 이끌었다. 그는 일본 제55대 총리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의 주치의의 말을 정도로 실력과 명성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히노하라 박사는 일본 적군파(赤軍派)가 비행기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갔던 ‘요도호 사건’을 직접 겪었다. 1970년 3월 31일부터 4일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서울 김포공항에 내려 자유의 땅을 밟았을 때 느꼈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죽었던 삶을 새로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히노하라 박사가 지난 7월에 별세한 후 그의 마지막 말을 모은 책 ‘살아있는 당신에게’가 9월 발간되었으며, 발간 직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책에서 그는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삶과 죽음, 고통과 행복, 가족과 우정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책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1월까지 11회에 걸쳐 20시간 이상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죽음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시작되며, 그는 “듣는 것만으로 다리가 떨릴 정도로 무섭다”고 솔직하게 답한다. 하지만 이어 “죽음과 생명은 나눌 수 없는 것이며 도망갈 수도 없다. 단지 부어받은 사명을 완주하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담담하게 털어놓는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을 이어가고 싶다”고 다짐한 후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다. 인간은 누구나 사망하므로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다. 그는 “나이를 먹는 것은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축복이다. 최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한바 있다.

히노하라 박사는 자신의 진정한 친구로 갑상선암(thyroid cancer)으로 목소리를 잃었다가 일본인 의료진의 도움으로 성대(聲帶)복원수술을 받은 뒤 목소리를 되찾은 한국인 성악가 배재철 테너(Tenor)를 꼽으면서 102세 때 배 씨의 열창을

접하고 “노래로 신(神)의 존재를 느낀 것은 처음”이라고 감동했다. 이후 열성적인 후원자로 변신해 전국을 돌며 10회 이상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사람이 건강하다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인간의 수명을 성서(Bible)적 차원에서 보면 구약전서(The Old Testament) 창세기(Genesis)에 아담(Adam)은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최장수(長壽)자인 메두셀라(Methuselah)가 969세까지 살았다. 그러나 바로 그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의 한계 수명을 120세로 규정해 두었다.

즉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한편 구약성경 시편(Psalms)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현대에 와서 노화·장수화자들은 현대인들의 성장 발육이 24~25세에 완성되며 그 발육기간의 5배가 인간의 한계수명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인간은 120-125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70-80세는 요즘 선진국의 평균수명 수치인바 2천년 전 성경 말씀과 현대 과학연구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인구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1세이지만 건강수명, 즉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사는 기간은 73년에 불과하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비율은 점점 낮아진다. 예를 들면, 80-84세 연령대는 80% 이하, 85세가 넘으면 60% 이하로 떨어진다. 결국 혼자 설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일본의 히노하라 박사는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강연을 하였다. 첫 번째 강연은 제20차 세계 노년학·노인의학대회에 즈음하여 2007년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빛나게 산다 - 자신의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 약 1천여 명 청중들에게 강연했다. 인생은 자신이 디자인해서 사는 것임을 인식하고, 생활방법·교제 상대·살아가는 보람(Quality of Life)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회는李吉女 가천길재단 이사장과 朴相哲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의 초청으로 2010

년 10월 5일 롯데호텔에서 ‘늦지 않고 잘 사는 법, 행복한 인생을 위한 나의 메시지’를 주제로 열렸다.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문제, 100세 이상 장수자,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과 향후 연구영역, 노화방지의학(anti-aging medicine), 인간의 영혼성(spirituality) 등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가천의과대학교는 10월 6일 대강당에서 히노하라 이사장에게 명예 의학박사학위를 수여하고, ‘히노하라 건강법·행복한 100세 장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서 히노하라 박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老年)을 보내는 비결로 ▲사랑하고 사랑받자 ▲도전을 시작하자 ▲인내하자 등 세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히노하라 박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길 비결’ ‘新老人으로 산다’, ‘인생의四季’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잘 늙고 어떻게 잘 죽느냐 ‘삶이 즐거워지는 15가지 습관’ ‘행복한 우연’ 등 250권이 넘는 저서를 은 현대인들의 성장 발육이 24~25세에 완성되며 그 발육기간의 5배가 인간의 한계수명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인간은 120-125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70-80세는 요즘 선진국의 평균수명 수치인바 2천년 전 성경 말씀과 현대 과학연구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히노하라 박사는 신노인(新老人), 생활습관병 등 여러 신조어(新造語)를 만들었다. 일본에서 ‘노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여 65세에서 74세까지의 노인을 ‘전기(前期) 고령자(高齢者)’, 그리고 75세부터는 ‘후기(後期) 고령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히노하라 박사는 75세 이상을 ‘신노인’이라고 부르고 ‘신노인회(新老人會)’를 조직하여 회장직을 맡았다. 신노인회의 기본이념은 사랑·인내·창조에 두고 있으며, 75세 이상 고령자 중 자립할 수 있는 노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한다.

히노하라 박사는 어릴 때 운동을 좋아했으나 열 살 때 신장염(腎臟炎)을 앓아 운동을 포기했다. 의과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결핵(結核)에 걸려 몇 년간 요양을 했기 때문에 의사를 못 할 것이라고 남들은 말하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따라 건강이 달라지고 체질도 변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잘 먹기’ ‘잘 움직이기’ ‘잘 쉬기’를 실천했다. 히노하라 박사는 장수 비결을 ‘신체 건강’보다 ‘정신건강’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식호흡, 음악 감상, 명상, 일기와 편지 쓰기 등을 권장한다.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므로 음식은 검소하게 먹는 것이 좋다. 동물성

지방, 설탕, 소금 섭취는 가능한 한 줄이고 우유, 생선, 콩류, 채소 등을 매일 먹는 것이 좋다. 운동부족은 노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걷기 운동은 근육을 단련시키고,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해 주고, 뇌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히노하라 박사는 1주일에 1-3회 출장을 가는데, 역이나 공항에서 약 8kg 무게의 가방을 들고 다녔다.

일본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 나이에 대한 정의를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노인이 사회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주체가 되자는 취지로 2000년에 ‘신노인운동’을 시작했다. 또 노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사랑 주고받기, 도전하기, 인내하기’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2005년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은퇴 후에 갑자기 늙는 사람이 많다. 이에 현역에서 물러나면 새로운 일을 해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본 신노인회 1만2천명 회원 중에는 70-80세에도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일을 배우고,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린이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다. 즉 나이를 먹을수록 정열, 꿈, 호기심 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은 자신이 받아들이는 ‘건강한 노년’과 어떤 환경에도 잘 순응하는 ‘적응력’ 두 가지가 중요하다.

히노하라 박사의 ‘신노인 長壽 건강생활’ 법칙은 다음과 같다. ▲죽는 시간까지 인생의 현역으로 산다는 자세를 갖자.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항상 창조하는 일을 하고 남을 위해 살자. ▲살기 어려운 것은 어느 세상에서나 똑같다고 생각하자. ▲남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집에서 활발한 교제를 하자. ▲젊은 사람들의 관심사에도 귀를 기울이자. ▲항상 걷는 습관을 지니고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이자. ▲노년 건강의 최대 적은 낙상과 골절이므로 잘 구르는 연습을 하자. ▲몸에 좋은 심호흡과 복식호흡을 하자. ▲웃음으로 얼굴에 주름을 늘리자.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의사를 찾는다.

우리는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하여 식생활, 생활습관, 마음가짐 등이 삼위일체를 이루지도록 삶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이라고 강조한 히노하라 시게아키(日野原重明) 박사의 명언을 명심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졌는가?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 6:33)”

1. 의롭다, 올바르다, 선하다 하는 의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성경에 의롭게 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고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자 온 족속이 칭찬한자 고별료가 있다. 또한 의롭게 산 욥도 있다. 아브라함도 의롭다 하셨다. 의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그의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누구에게 어떻게 구하란 말인가? 밖으로 누군가로부터 얻으라는 말이 아닌가?

2. 성경에 죄 심판 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먼저 죄에 대하여(요 16:9) 심판에 대하여(요 16:11) 의에 대하여(요 16:7,10) 성경은 그가 죄 보혜사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였다.

(가) 죄에 대하여라함은 자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믿지 않는 결파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율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예수 믿지 않는 죄) 구하라 하지 않노라(요일 5:16) 두 가지 죄가 있다.

(나)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임금(마귀)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요: 16:11)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히 9:27, 28)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심판이 없다. 마귀도 심판을 받았고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창 3:15) 예수생명이 있는 우리들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마귀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요일 5:18) 저들이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구원하려 함이라(요 12:47)

(다) 의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자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것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영원한 대 제사장 일을 하시려고(히 8:1) 휘장 지성소 안에서(히 6:19, 20) 죄를 속하는 일을 위하여 가셨다. 영원한 속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11)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가 없고(갈 2:16, 롬 3:20) 예수님의 자기 피로 단번에 속하며 한번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그리고 죄와 불평을 기억치 않으신다(히 10: 18)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3. 아브라함의 의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창 15:6) 약속을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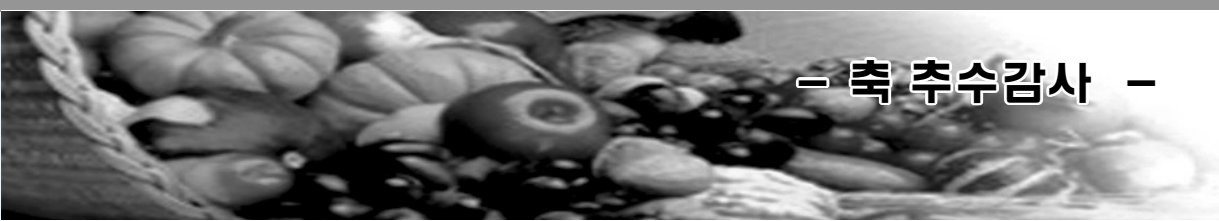
4. 고별료도 의인이라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셨다(행 10:31)천사가 고별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 (행 11:14) 그를 통하여 구원 얻을 소식을 들어라. 온 가족 친척들에게 생명 얻게 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닌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예수를 힘입어 구원 얻는 것이다. 고별료가 행한 기도 구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의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는다는 베드로 설교를 받아들임으로 성령이임하고 생명 얻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졌다.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이 고별료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

5. 욥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고난 받는 죄를 깨닫지 못할 때 그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였을 때 고난이 그치고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다.

6. 라합이 의롭게 된 행함은 무엇인가? 여러고성 멸망을 알고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알고 접대하였고 아비 형제 친척들을 멸망의 성 밖으로 나가게 하므로 생명을 얻게 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 되셨고, 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내안에 예수생명이 있는 증거는 구원의 확신이며 확신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 생명을 얻게 한다. 나와 똑같이 하늘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손운재 목사
이지볼코리아 대표
칼럼리스트



“전능자의 손이
우리과 함께 하신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 복 교 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막 11:17)

예/배/안/내

대 예 배 1부 : 오전 9시30분, 2부 :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유치부 오전 11시

주일예배 주일학교 오전 11시
청년·대학부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30분

수 요 예 배 수요일예배 오후 8시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0시

토요철야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심 야 기 도 회 매일오후 10시(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담임목사 **소 진 우**
PASTOR SO JIN WOO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TV 가정예배 칼럼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H.P : 010-8753-7179
교회 : (02)934-1232(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 복 교 회

교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 : (02)934-1232

2017 웨신총동문회 회장에 박철규 목사 선출

목회자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11월 2일(목) 오후 7시 충북 충주시 양성면 능암리 소재 충주 컨벤션리조트 9층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여 동문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가운데 단독 후보인 박철규 목사가 만장일치 웨신총동문회 회장에 당선됐다.

총회에 앞서 고경철 목사의 인도로 1부 개회예배가 진행되어 이순임 전도사가 기도를, 2314 동문들의 특별찬양, 회장 모상련 목사(목포주안교회)는 삼상 17:31~49절을 중심해서 “승리하려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모 목사는 목회자의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목회자는 목회현

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옳게 증거 할 수 있는 목회자, 긍정적인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기를 성심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 14:28).

목회자는 모든 삶에서 내 모습에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러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목회에 큰 역사가 있다고 했다.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눈물 흘리며 메시지를 선포하고 기도하면 목회의 현장은 살아나고 승리할 줄 믿는다고 했다.

하나님을 믿고, 부정적인 언어구사를 금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선포할 것과 또한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살아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목회현장에 큰 승리가 될 것을 믿는다고 모두가 소망을 갖자며 기원했다.

이어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정인찬 박사의 축사의 말씀과 성경현 목사의 축도에 이어 총동문회 서기 박경철 목사의 광고순으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총회는 회장 모상련 목사(웨신12회)의 개회선언으로 절차에 따라 회무처리가 진행되었으며,



임원선출에서 단독후보인 수석부회장 박철규 목사가 200여명의 동문들로부터 만장일치 거수로 박수갈채를 받는 가운데 신임회장에 선출되었다. 신임회장 박철규 목사는 총동문회 이념으로 직전회장 모상련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인

사를 통해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겠다’는 다짐과 함께 취임사를 대신했다. 이어 직전회장 모상련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3일 오전 9시 정기총회가 속개되어 임원선출에서 회장 박철규 목사(16회/새마음교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발표했다. 선임부회장 배봉섭 목사(13회), 부회장 장성현 목사(15회/실무), 염종석 목사(16회), 고영철 목사(16회), 인지승 목사(16회), 박근화 목사(17회), 문수석 목사(21회), 여성부회장 박순화 목사(16회), 김경자 전도사(17회), 김보화 목사(21회), 감사 김태욱 목사(16회), 정우영 목사(21회), 서기 박경철 목사(유임/23회), 부서기 유병도 목사(23회), 회계 전홍구 목사(18회), 부회계 이미영 순회선교사(22회), 총무 정석중 목사(21회/유임), 부총무 김재숙 집사(22회), 김준배 목사(23회), 박종훈 목사(23



회), 최승근 목사(25회) 등이다.

이어 조기형 충주시장은 충주시를 찾아주신 웨신총동문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즐겁고 평안하게 쉬셨다가 가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아울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 원우회장 박성우 학생과 부회장 신요한 학생이 원우를 대표해서 인사를 했으며, 원로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정창갑 목사(8회), 김기태 목사(9회), 성경현 목사(10회), 이윤근 목사(9회) 등이 등단하여 목회의 경험담을 나누면서 후배 동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한편 총동문회는 우천관계로 체육관에서 가질 운동을 취소하고 총

무 정석중 목사의 사회로 컨벤션리조트 세미나실에서 몇가지의 레이아웃으로 체육대회를 대신하여 회원 각자에게 부여된 번호를 추첨하여 이들에게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었다. 그 외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서 증정했다.

이날 총동문회장 박철규 목사의 기도로 1박 2일간의 웨스트민스터총동문회 정기총회를 마쳤으며, 화기에애한 가운데 아쉬운 가운데 2018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각자 일터와 가정, 섬기는 목양지를 향해 발걸음을 뒀다.

한기보협 제 10회 신학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특강 : 임준제, 박형철, 선한규, 장한국 교수 등이다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기보협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지난달 26일(목)오전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10회 신학세미나(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를 기도와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성회복에 화끈 받아들였다.

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신학세미나 첫 시간에 참좋은교회 협동목사이며 예장(개혁합동) 총회장 임준제 교수는 “영의 구조와 기능”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임 교수는 크게 두 가지를 들어 1) ‘인간 주조에 대한 성경적 이해’ 2) ‘기능론적 면에서의 삼분설 주장과 배경’에 대해서 다루었고, 두 번째는 영·혼·육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해 1)영혼육의 정체성, 영혼육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주제로 강의했다.

두 번째 시간은 한우리교회 담임

박형철 교수 예장(호헌/신대원장)은 “성경원형 회복적 설교방법”에 대한 주제로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방법’에 대해 강의를 했다. 이날 박 교수는 1. 성경원형 회복적 설교의 모본에서 1)예수께서 하신 설교방법과 2)사도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설교방법, 3)바울의 설교방법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 외 성경원형회복적 설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원형회복적 설교 모본,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설교 등에 열강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생명교회 담임 선한규 교수(예장 영신총회 신학교 학장)를 강사로 “천지창조에 대한 구속사”에서 1. 광대한 창조주 하나님, 1)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2) 둘째 날은 물과 불을 나누시고 공장을 만드심, 3)셋째 날은 물이 드러나고 땅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 4)넷째 날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을 만드심, 5)다섯째 날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심, 6)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심, 7)결론 등으로 강의했다.

이날 끝 강의를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예장(진리)총회장/JTNTV방송신문사 부이사장)는 “일곱 영에 의한 종말구원역사 연구”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장 목사는 ‘요한계시록에서부터 특별히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며 성령과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통한 종말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이루시는 큰 구원역사를 깊이 상고하자면 1. 일곱 영에 대한 개관, 2. 스테반을 통해 잡혀 계시하는 일곱 영, 3. 또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여하여 예언케 하리라(행 2:18),

4. 왜 요한계시록에서만 일곱 영을 계시하는가?에 대해서 열강 했다. 결론에서 장 목사는 일곱 영으로 그들이 환난 날에 예언권에 받아 예언하게 하기 위하여 행 2:18 말씀대로 충만케 하여 이루실 것을 계시하신다. 또 종말의 환난 날에 순교한 모든 성도들에게 일곱 영을 부여하신다.(행 7:55-60) 이 순교할 성도들에게 스테반같이 순교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날 이러한 순교자 수를 뽑으신다(계 6:11, 7:9-). 고 하였다.

한기보협 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는 열강에 혼신을 다한 교수들과 강의를 끝까지 듣고 함께 기도한 많은 목회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축도로 마쳤다.

동영상 JTNTV방송 (<http://jntv.kr>)에서 네 번의 강의를 다시 볼 수 있다.



2017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피아노전공 졸업연주회

2017년 10월 23일(월), 24일(화), 31일(화) 저녁 7시30분 3차례에 걸쳐 사당동 총신대학교 신관 5층 콘서트홀에서는 4년 동안 배우고 익힌 모든 실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선후배들 앞에서 교회음악과 피아노 전공자들이 졸업연주회를 가졌다. 단풍이 물든 가을의 밤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기 위해 졸업 연주에 나선 학생들의 피아노 선율에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음악에 흠뻑 빠져드는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시편 71편22절의 “나의 하나님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금 번 졸업연주에 나선 연주자들은 윤나라, 이사라, 이지은, 이하은, 김미나, 박정하, 배윤진, 봉하영, 송한나, 우애린, 이하영, 임혜민, 장세나, 허인경, 홍지아, 황민정 등 16명이다.

주성희 교회음악과 학과장은 “결실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교회음악과 피아노 전공 4학년 학생들이 졸업연주회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새싹이 자라 푸르른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룰 수 있듯이 오늘의 이 연주회는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에 입학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4년간의 노력과 정성



으로 성장하여 그 결실로 이루어진 연주회입니다. 이 연주회를 통하여 신앙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성장하여 한국 교회음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회 음악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귀한 교회 음악인들 사랑과 희생으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신 부모님들 그리고 여과성을 다해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 자신의 일처럼 기쁨으로 동참하며 응원하는 총신의 한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힘찬 격려와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연주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의 신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축하의 글을 전하였다.

이에 연주자들은 “2017년 총신대

학교 졸업연주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부족한 저희를 지금까지 사랑과 인내로 가르쳐 주시며, 오늘 이 무대에 서기까지 도와주신 정지강, 유지수, 강소연, 김윤경, 김은란, 김지은, 김지현, 박지인, 손은영, 이명희, 이유정 이은혜 교수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사를 드리며, 또한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당신의 소중한 딸들을 위해 항상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께 사랑을 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10월 31일(화)에 6명의 교회음악과 피아노 전공자들의 졸업연주가 남아 있고, 11월 6일(월)과 7일(화)에는 교회음악과 성악 전공자들의 졸업 연주회가 준비되어 가을 밤 아름다운 목소리의 향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총신대에서 백운성 기자(안산지사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보수)

표어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43:19)

- 축 -
추수감사

주제 :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살후 1:3)



이규필 목사
(한중노회/동천교회)



윤석철 박사
(천복교회)



강대일 목사
(한중노회/평안교회)



김영국 목사
(호남노회/양지중앙교회)



임상국 목사
(대구노회/천복북교회)



주지광 목사
(경남노회/사천대곡교회)



서재식 목사
(서인노회/풍성교회)



김상대 목사
(수원노회/반석교회)



송인섭 장로
(한중노회/양문교회)



이점수 장로
(대구노회/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한중노회/시온교회)

합동보수교단은 뜻을 같이 할 교회와 기관, 교단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 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가산동/동천교회)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 목약칼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13)

〈지난호 이어서...〉

“오 주님! 제 핏기 내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이 죄에서 저를 이미 해방하셨건만 제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해 또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 해 주옵소서 이제 이 사실을 믿사오니 이 죄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런 회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제는 죄의 열매만을 자르는 회개를 버리고 뿌리를 자르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 속사람(새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고 주님을 영접 함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때 영의 사람인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 새사람이 된 것이고 예전에 살았던 혼(육체)의 사람인 겉 사람은 옛사람이 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 63)고 하신 같이, 우리의 영의 사람인 속사람(새사람)만 하나님께 가치 있고 우리의 혼(육체)의 사람인 겉사 람(옛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라”(고후 4: 16)라고, 또 “그 영광의 종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엡 3: 16)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새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좇고자 하고 우리의 겉사람인 옛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좇고자 하기에 우리 마음은 항상 속사람(새사람)과 겉사람(옛사람)이 싸우는 영적 전투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TNTV운영이사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 22?25)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속사람인 새사람이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하리라”(갈 5: 16). 이를 위해 우리의 속사람인 새사람이 강건함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엡 4: 24).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 3: 10).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새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 17).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겉사람(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옛사람-혼의 사람)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옛사람-혼의 사람)을 구원코자 하면 (새사람-영의 사람)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옛사람-혼의 사람)을 잃으면 (새사람-영의 사람)을 찾으리라”(마 16: 24~25).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인 독자 이삭을 육체를 따라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괴롭힌 것같이 현재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형제들이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을 수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이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갈 4: 28~31).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로 먼저 태어난 겉사람(옛사람)이 나중에 성령으로 태어난 약속의 씨인 속사람(새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좇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되 속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육체의 소욕을 좇아 원수마귀의 뜻대로 살게 하므로 속사람을 방해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스마엘을 내어쫓은 것같이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새사람)이 젖 먹는 수준이 지나면 우리의 겉사람(옛사람)을 내어쫓아야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의 겉사람(옛사람)은 계속하여 나이를 먹습니다. 겉사람이 나이를 먹는 방법은 세상(원수마귀)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의 삶이 우리의 겉사람(옛사람)을 충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아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약 4: 4).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해 하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1서 2: 15-17).

속사람(새사람)이 나이를 먹는 방법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꾀술과 외식과 시기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심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하려 함이라”(벧전 2: 1~2: 2)고 하신 같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세상을 끊고 기도와 말씀무장과 성경을 향해 정진하는 것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날마다 속사람(새사람)으로 겉사람(옛 사람)을 죽이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형제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그러나 현실에서는 겉사람(옛사람)보다 나이가 적은 속사람(새 사람)이 겉사람을 내어쫓는 일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할 수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大韓民國 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15)

(韓國近代教育의 始作과 發達의 歷史的 考察)(1884년~1945년)

〈지난호 이어서...〉

5. 우리는 이 조치의 결과를 깊이 생각해왔다. 이방법이 수많은 가정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열게 될 것을 의미하며, 수년 동안 이사업에 헌신해온 교사들과 선교사들에게 슬픔을 줄 것을 알면서도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6. 이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당국이 우리학교들에 요구를 비난하거나, 이런 저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세속교육 분야에서 인퇴하고자 하는 것을 알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7. 교육 사업을 청산 하는 자연스런 첫 번째 조치로서 선교부에 4월 새 학기에 신입생을 받지 말 것을 명령 한다. 학교폐쇄의 전 과정이 완료되기까지 반에 새로운 학생들(편입생)은 허용할 수 없다.

8.현재 학생을 졸업 시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학교들이 계속적으로 표명해온 기독교적 태도와 위치를 변형시켜야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이일이 완수되기까지 수업을 계속 할것을 학교들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그런 요구가 있을 시에는 당국에 항복하거나 더 이상 지체 하지 말고 학교를 폐쇄 할 것을 명령한다. 어떤 학교에 계속 권고할 수 없는 지역적이거나 내부적인 환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히 재학 중인 학생들의 졸업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학교를 폐쇄할 것을 선교부에 위임한다.

9. 청산 기간 동안에 학교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시민 정신을 증진 시키고 깊은 애국심을 조장하며, 법과 권위에 대한 존중심을 가르치고 충성과 애국의 고상한 원리를 가르칠 것을 권고한다.

10. 학교를 폐쇄하는 전 과정은 최소한의 공중의 주목을 받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당국의 어떤 문제나 혼란을 피하도록 할 것을 명령한다.

11. 이 위기에 학교 재산 처분에 관해서는 우리학교들이 서있던 기독교적 원칙을 유지할 수없는 집단이나 조직에 교육목적으로 기증, 대여, 세, 판매로 양도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양도에 의 이 재산들이 제공하거나 유지해온 후원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표되는 확실한 신념들이라고 믿는 것과 일치 할 때만 다른 이들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기부가 사용하는 이재산에대한 청지기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학교를 폐쇄하는데 대한



김창룡 목사
칼럼리스트 金 昌 龍 牧師
(하나님미디어인하신교회)

근본적인 양심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똑같은 체제하에서 학교를 경영하도록 명백히 기독교교육을 위해서 주어진 재산을 다른 기관에 양도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

12. 재산의 최종적인 처분은 규정집 138-146 구절의 조항에 따라 해외선교부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3. 한국에서 세속 교육으로부터 인퇴한다는 우리의 결정은 학교가 요구들을 받는 한 명백하고 결정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당국이 우리가 돕고자하는 목적의 진실성을 이해하고 이조치를 마지못해 취한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며, 일본의 충성스런 친구가 기독교원칙을 양보하지 않고 그들의 봉사 사명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소결론 -나가는글

우리나라 근대 기독교 교육의 시작은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정치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노도질풍의 시대 풍전등화 속의 조선에 한줄기 소망을 주었던 근대 기독교의 학원선교는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한다. 교육은 민족과 국가의 100년 앞을 미리 준비하는 선구자적인 마음과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고 진행해야한다. 필자는 100년 전의 교육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흡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애痛하며, 이시대적 부르심에 순종할 선지자 들이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각각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짧은 시간 안에 100년의 역사를 돌아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هنا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은 고민과 연구와 기도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다음은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변화와 문제점을

검토 연구 코저함. 많은 기도과 지도편달 바랍니다.

참고문헌

1) 피정만, 근대의 사회상, 한국사회와 교육, 교육과학사, 1980년 2) 정혜정, 동학 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 해안, 2001년 3) 신용하, 한국최초의 근대학교, 한국근대사회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0년 4) 이광린, 한국개회사상연구, 일조각, 1981년 5) 차석기, 한국민족주의 교육의 생성과 전개, 태학사, 1999년 6) 이광린, 한국개회사상연구, 일조각, 1981년 7) 매항100년사 학교법인 매항 2006년

◇오늘의 고사성어

야화(野花)

지해 : 野 들아, 花 꽃화. 의미 : 김중서가 애첩을 들에 핀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여 야화라고 불렀음. 출전 : 일화집(逸話集) 고사 : 김중서와 수양대군의 대치는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수양대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수양대군이 계유정란을 일으킨 날 저녁때 김중서를 살해하려고 홍윤성을 김중서 집으로 보내서 김중서의 거동을 엿따고 간 다음 웬일인지 김중서는 한량없이 마음이 슬펐다.

시국의 뒤숭숭함을 걱정함도 있었고 철승이 된 자기를 한탄함도 있었지만 어쨌든 세상이 마지막인 듯한 무수예감이 들어서 애첩 도람나를 불러 마음을 위로했다. 도람나는 두만강 가에서 성장한 야인 추장의 딸로서 환경도 절제사 이징옥이 야인과 싸울 때 포로로 잡아서 은인인 김중서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다.

야인의 딸이오 들에서 주워 왔다 해서 김중서 스스로가 야화라고 불렀거니와 참으로 야화는 꽃같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래서 간혹 한가한 저녁이면 김중서는 야화를 불러서 술을 치게 하며 사랑했지만 이날 저녁의 그는 전에 없이 야화를 애무하며 슬퍼했다. “야화야, 너를 고향으로 보내 줄까?” 하며 야화의 손을 만지기도 하고, “내가 죽거든 젊은 신랑을 얻어 가져라” 하며 야화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며, “야화야 오늘밤 나를 즐겁게 해다오.” 하며 야화의 무릎을 베고 눕기도 하였다. 그럴 때 수양대군이 철여의와 칼을 숨긴 임운, 양정, 류수 세 장정을 데리고 와서 김중서 부자를 살해하고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발각 뒤집혀 야화는 쓸쓸히 가을 서리에 지듯 성장한 곳으로 사라진 것이다.

- 축 추수감사 -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김선우 목사

주사랑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H.P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오승종 목사

홍성제일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 오후 7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배영자 목사

금천시온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 저녁 7시30분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박민규 목사

새생명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일예 저녁 7시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혜진 목사

벚엘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일예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최순란 목사

주능력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5시3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백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장 박순중 목사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편정-1급 ~3급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최낙헌 목사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박연자 목사

광은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주소 : 인천 남구 주안 4동 1483-4 (3층)

H.P 010-6237-9755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담임 박한근 목사

두란노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유순욱 목사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6704

제13회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 30여 민족대표 연합으로 뜨겁게 기도

글로벌국제선교·교회연합(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Rally; 이하 GIM) 주최 제13회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운명 목사, 월넛크릭지아이엘교회 담임)가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시편 96: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지어다) 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8일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Pleasant Hill 소재 First Christian Church(담임 Doug McCoy 목사)와 29일 Oakland 소재 Emmanuel Palabra Viva Church(담임 Orlando Cerna 목사)에서 30여 민족 대표와 다민족 성도들이 모여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소원하는 국제선교대회 성황리에 갖고 헌신의 결단과 결속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교대회에는 美주류교회를 비롯 한국, 우간다, 하티티, 동유럽, 루마니아, 미얀마, 중국, 이란, 라티노, 아랍, 에티오피아,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메리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스라엘(Messianic Jew), 몽골, 통가 등 30여 여러 민족대표와 다수의 다민족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간구하는 합심 릴레이 기도를 가진 후



▲제13회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를 마친 30여 민족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개국의 선교 보고가 이어졌다. 이어서 메시지, 패널, 찬양 페스티벌을 갖고 미국내 Evangelical 교회의 여러 민족들과의 연합과 협력을 통한 선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였다. 10월 28일 진행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민족 대표들의 합심 릴레이 기도에서는 미국과 열방을 향한 사회, 경제, 교육, 가정, 교회, 교회 등의 회복을 위한 베이 지역 교회지도자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주 강사인 Rick Durst 박사(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 Bay 지역 SF 캠퍼스 디렉터)은 “사회의 역경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과 비전” 주제의 메시지를 전했다. 국제패널에서는 플리신학대학교 리더십 교수인 Doug Stevens 목사의

사회로 “Seek, Justice, encourage the oppressed--- “라는 주제로 7명의 패널이 발표를 이어갔다.

한편, 북가주지역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임(회장 강영혜 집사)산하 Enlightened Koreanamerican Women’s Club 크라마 하프팀(단장 양영혜 집사)은 아름다운 연주로, 미국교회와 라티노 등의 교회는 특별찬양으로 각각 섬겨졌다.

마지막으로 “God Bless America”를 연합으로 합창하는 가운데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함께 소원하면서 내년 10월 실리온 벨리지역의 산마테오 Westin Hills Church(담임 Karl Ortiz)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이영인 기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민족교계지도자들 무릎 꿇고 회개기도

종교개혁500주년 기념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29일(주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다민족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종교개혁 500주년 및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개최했다.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JAMA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는 “미국이 다시 한번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일들을 회개하며, 강력한 대부흥을 경험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다민족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 “종교개혁가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선언하며 지켰던 5대 솔라를 중요한 핵심교리로

삼고 실천을 선언하자며 기도하고 외쳤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JAMA 대표)는 “다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 의미 깊은 연합기도회를 갖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무총장 김경일 목사(KWMC 본부장)는 “성경적 가치관의 진정한 회복과 실천을 위해 목회자들이 먼저 참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A Line in the sand)는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회개와 기도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남가주장로성가단, 은혜장로성가



단의 특별찬양에 이어 열림교회 담임 네오 훈테 목사와 김준근 교수(JAMA 설립자겸 GLD대표)가 주제 설교를 하고, 목회자들이 종교개혁500주년 참회실천 선언문을 낭독한 뒤 다음과 같은 기도제목으로 장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회개(Repentance-민경엽 목사)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 윤목 목사 △하나님을 배반한 죄△정영희 목사 △교회의 성령충만하지 못한 죄 △David Andrade 목사(A Line in the Sand) △미국이 말씀을 떠난 죄: T’y Austin 목사(The Rock Church), ■부흥과 회복(Revival & Restoration-신승훈 목사) △가정 회복: 김철민 장로 △교육, 문화 회복: Jeff Hyun 목사 △생명보호(낙태

반대): Allan Parker 변호사(Justice Foundation) & 전두승 목사 △부흥: Fred Berry 목사(아주사부흥운동) ■ 미국과 지도자(America & Leaders-고태형 목사) △미국의 청교도 신앙회복: 김우준 목사, △대통령과 행정부: Dion Elmore 목사(National Day of Prayer) △사법부와 입법부: Walter Tucker 목사 ■ 차세대와 선교(Next Generation & Missions-김태형 목사) △캠퍼스 사역: Tracy Jang 간사 △선교: 안병돈 장로 △차세대교육, 부모의 자녀: 제자화: Kohn Lo 목사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Kato Dawood 선교사 ■ 어려움 속에 있는 도시와 나라들(Suffering Cities & Nations-이호우 목사) △한국 & 평창 올림픽 성공: 이병만 장로 △북한 & 한반도의 평화: Rev. Michael Petros △어려움 당하는 도시와 나라들: Rev. Leonardo Funes (Elim Church) 이정현 기자 153@christianvision.net

원로목회자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에배’ 드린다

오는 11월 2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선교를 위한 발대식도 함께 개최

2018년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기원에배 및 선교를 위한 발대식이 개최된다.

한국기독교스포츠통연합회는 오는 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에배’를 ‘세계는 한국으로, 복음은 세계로’의 슬로건으로 드리기로 했다. 주최 측은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에 평화와 뿌리내리고, 무엇보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선교의 장으로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를 소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예배는 지난 1988년 우리나라가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던 당시, 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면서 전 세계인에 복음을 전했던 원로목사들이 주축이 돼 준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에 속한 원로목사 약 20명은 27일 오전 서울 평창동에서 모임을 갖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에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기독교스포츠통연합회 대표회장 송용필 목사는 “올림픽은 단지 스포츠 경연의 장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 참여한 모든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적 행사”라며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단체들도 참여하는 만큼 개최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했다.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태 장로도 “올림픽은 세계인이 참여하는 지구촌적 행사로

국민의 일원인 기독교인들은 이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특히 이 올림픽을 통해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길 바란다. 무엇보다 복음의 전파지는 선교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모임은 김진욱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이사)의 사회, 김동권 목사(예장 합동 중경총회장)의 기도, 지덕 목사(한기총 명예회장)의 설교, 신신목 목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드린 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에배’ 등 향후 행사에 대해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와 ‘다시 그리스도만으로’를 주제로 지난 28~29일 일산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기독교한국루터회가 주최하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임국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기념음악회를 비롯해 3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개혁박람회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됐다.

대회 이튿날 열린 22개 교단 연합예배에서 이경욱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사무총장)가 대표로 한국교회 선언문을 낭독했다.

22개 교단은 선언문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 ■교회개혁의 유산을 받은 자랑스러운 개신교회로서 개혁정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 ■교회개혁이 오늘과 내일에도 지속되어야 할 과제임을 받아들이고 ■불의한 일을 버리고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 살기에 힘쓸 것 등을 약속했다.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2개교단 연합예배 장면.

이어 “500년 전 16세기 개혁자들은 부패와 타락으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교회개혁 운동을 일으켰다”며 한국교회가 올바른 공동체로 서기 위해 ■성공지상주의를 배척하고 참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일에 전력할 것 ■경건한 삶을 통해 도덕적, 윤리적 삶의 모범이 될 것 ?참된 신앙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기희생으로 나타남을 고백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어느 시대이든 교회의 개혁은 곧 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신앙전통을 따라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지 않을 것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선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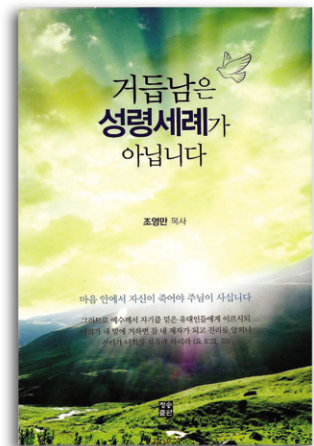
선언문 낭독에는 이 목사 외에 서정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 부총회장), 최연기 목사(그리스도교회협의회 부총회장)이 참여했다.

한편 교단 연합예배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장 진영석 목사)가 주최하는 루터교회 연합예배가 드러졌다. 예배에서는 김철환 루터회 직전 총회장이 설교를 전했다. 김 전 총회장은 ‘예수를 만나니 사람이 보이더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에게는 이웃이 보여야 한다.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듯이 예수를 만나면 이웃이 보여야 한다”며 “한국땅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잘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보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회장은 또 “신앙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라며 “거룩한 개혁주일 아침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만나고 이웃을 살리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 축 추 수 감사 —

신간 “전인구원의 완전한 여정”



저자 조영만

- 인위대학교 체육교육과
- 총회신학교
- 국제신학대학원(M Div.M.A)
- 인천 종합건설본부 신우회 지도목사
- 인천 연구수학 신우회 지도목사

- 사·예장합동보수연합신교회 이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교단 총무
-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운영이사
- CTS 경인방송 운영이사
- 현재 인천시온장로교회 담임목사

거듭남을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침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거듭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이른바거듭남을 뜻는 비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종해를 건너는 것(거듭남을 요단을 건너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거듭남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어린 아이(거듭남을 장성한 것(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거듭남을 신령한 자(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중생의 새(거듭남을 성령의 새를 해심(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거듭남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은혜(거듭남을 은혜위에 은혜(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영광(거듭남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거듭남을 너희 속에 계시(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새 영(거듭남을 새 마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구원의 속(거듭남을 의의 결(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이브라함(85세에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거듭남을 99세에 영원한 안락한 할례를 받은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거듭남을 제자들이
주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성령세례라고 같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새 안락의 성취인 성령세례 곧 믿음의 할례인 성령의 은총을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일에 실패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책 주문 방법

- 주문자 성명, 인준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 연락처 : 010-5355-2584
-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 예금주 : 시온교회
- 신한은행 : 110-029-475990
- 책 가격 : 15,000원
- 배송비 :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http://cafe.daum.net/choym.com



담임목사 모상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1회 오전 8:00
	3회 오전 11:30
주일밤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30
	(겨울7:00)
새벽예배	오전 5:00

<http://www.mokpojuan.com>

교회를 섬기는 분

부목사	모정선, 박민수, 성남수, 모성은
협동목사	장정화
전도사	윤영목, 송선했, 민(베트남·신학교 유학)
협동전도사	추정희
파송선교사	임재선(베트남), 김은미(베트남), 안윤기(캄보디아), 김진희(캄보디아), 신길현(미얀마), 백현주(미얀마), 김미경
시무장로	송영문, 천은성,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모상후, 송현중
협동장로	이병화
은퇴장로	고재연, 원복희

대 한 예 수 교 목 포 주 안 교 회

주 소 : 58714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 061)272-4908, 팩스: (061)276-1006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JTNTV, 지저스타임즈 창간 12주년기념 감사예배 드려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시 25:1). 필객의 붓이 되리란 사명으로 시작된 지저스타임즈(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가 창간 12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지사장 및 운영이사, 기자가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지난 27일(금) 오전 11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소재 동천교회(이규필 목사/본지 부이사장/합동보수 총회장)에서 본지 창간 12주년을 기념하며 기도와 찬양과 감사예배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다.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에 자문 이흥희 목사가 기도를, 운영이사 강신숙 목사, 김상경 목사, 임원석 목사 등의 특송과 이미애 전도사의 목찬양에 이어 사장 소진우 목사는 삼상 7:3-4절을 제목으로 "혹 아니면 백"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사장 소 목사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믿고 있더라,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 외의 것도 믿고 있다고 했다. 모 권사 님에 심방을 갖는데 해바라기 꽃이 한 아름 바구니에 담



겨져 있어서 물으니 권사가 대답하기를 해바라기 꽃을 꽃이두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꽃아놓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어떤 집은 만원 짜리 지폐를 코팅해서 화장대에 부착해 두는가하면, 어떤 이는 커다란 福자를 뒤집어서 거꾸로 매달아 놓았는데 그 이유는 복이 쏠아지라고 복자를 거꾸로 걸어놓았다고 한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며 가슴아파했다.

소위 권사, 집사의 집에 심방가면 흔하듯 볼 수 있는 신앙인의 병폐라고 했다. 우리가 진짜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느 날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말은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릇을 제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는데,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적당히 믿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적당히 믿는 신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목숨 걸어야 하고, 우리 지저스타임즈도 적당히 아니라 지금처럼 분명하게 복음 안에서 중도를 걸어가는 신문이 되기를 바란다

고 하시었다. 이어 유수현 일본방송선교사가 몸 찬양을, 이미애 전도사가 봉헌 찬송을, 운영이사 유순옥 목사(조

예교정선교회)가 봉헌기도를, 상임이사 광동훈 목사(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원장)가 축사를, 논설위원 최순길 목사, 수석상임이사 박형희 목사가 각각 권면했다.

또한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의 인도로 신문사를 위하여, 문서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국내외 50여 지사를 위하여, 본지와 MOU를체결한 미 LA크리스천헤럴드사 및 AKTV18.10(www.aktv1810.com), 시니어타임즈US신문사, 크리스천비전신문, 미주타임즈신문사, 애플란타 지저스타임즈 등 제후사를 위하여, 국가 안녕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장소와 식사를 제공한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와 회원을 교회화 위하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 합동보수 총회장 이규필 목사(부이사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창간 12주년기념 감사예배를 마친 후 동천교회 부이사장 이규필 목사가 참석한 회원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애찬을 나누고,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공동회장 김선우 목사의 기도로 이사회를 열고,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신문사를 섬기며 기도하고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히고, 주기도문으로 이사회를 마쳤다. 차기 장소는 12월 중순경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에서 본사 및 언론부흥사협의회 급금을 마지막 장식하는 기도회 및 이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도영성신학원 2017. 학위수료 및 졸업식 가져

학장 홍향표 박사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추구하기 위한 투철한 사명으로 서울 구로지역에 사도영성신학원을 개설하고 2017년도 학위수료식 및 졸업식을 지난달 26일(목) 저녁 7시 서울 구로동에 있는 사랑의교회(홍향표 목사사무)에서 가졌다.

이날 교무과장 홍성익 목사의 진행으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교수 이갑표 목사가 기도를, 교수 박용숙 목사가 축하인사 및 특송을 했다. 이어 학장 홍향표 목사는 마10:45절을 본문으로 "초대교회 사도영성 사명자의 각오"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사도영성신학원 학장 홍향표 목사는 필리핀 영지대학교 총장과 협정식을 가졌으며, 회장 허 식 목사는 경찰청,한경총국제경목(김낙신 총장) 위촉식을 갖고, 학장 홍향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학위과정 수료 및 졸업식이 진행되고 교수 허 식 목사가 권면을, 명지대학교 총장 김낙신 목사가 축사를, 이수학 회장의 답사에 이어 학장 홍향표 목사가 인사소개를 끝으로 마쳤다.

한편 졸업생 가운데 이수학 회장이 공로상을, 임용환 전도사가 성적우수상을 취득했다.



아울러 이날 이수학 임용환 등이 학사과정은 수료했으며, 이춘우, 김동현 전도사가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학장 홍향표 박사는 본신학원의 취지를 다음과 설명하고 있다. 본원의 사도들의 영성 특징은 예수님의 영성인 청빈, 순결, 순종이 삶을 본받아 가면서 1. 사도들은 미래를 산 사람들이다(마 6:33-34), 2. 사도들은 마귀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요 16:33, 요일 5:4), 3. 사도들은 실천하는 지성인이다(마 7:21, 24-25), 4. 사도들은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다(마 16:24-25, 갈 2:20), 5.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이다(롬 8:29-30)를 포로로 시작된 사도영성신학원은 평신도나 신학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며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데 있다며 신학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에부협 월례회 가져

국제예복부흥사회(이하-국제부협,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는 지난 달 30일 오전 11시 인천시 남구 한나루로358번길 영광교회(수석실무회장/이선한 목사)에서 정기월례회를 열고 회무처리에 앞서 김지언

(재정부장)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사무처장 정사라 목사가 기도를, 꾸미오리 기독교운동의 아름다운 울동과 수석부총재 임순환 목사는 답후 4:7-8절을 중심해서 "신앙의 금메달"이라는 제목

으로 설교했다.

임순환 목사는 부흥사는 절대로 물질에 유혹을 받지 말 것을 당부하고, 또한 우리는 복음의 소명이 있어야 하며, 부흥사로서 최선을 다할 때 금메달을 받는다고 했다. 국제예복부흥사회 회원들의 할 일은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며, 부흥사의 소명을 다하자고

했다. 특히 깨어 있어서 주님에게 신앙의 금메달을 받자고 했다.

이어 김선우(감사단장) 목사가 헌금찬송 한 후 윤주만 (사무처장) 목사가 광고를, 또한 특별기도 순서에서 1. 국제 예복부흥사회를 위하여, 2.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3. 해외 선교지 일본, 파라과이, 및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4. 국가 안녕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영광교회와 회원교회를 위하여 5. 연합성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한 후 부총재 윤동훈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안전토의에서 예복부흥사 행사는 12월 10일~13일 오후 2시 30분 저녁 7시에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소재 열린교회 / 예배다기도인 조에스터 목사에서 갖는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4일(월) 오전 11시 국제예복부흥사협의회의 총재 이흥희 목사의 취임감사예배가 축복받은교회에서 있으며 동시에 송년회를 겸하여 가질 예정이다.

성순희 기자 jt1press1@hanmail.net

성시화운동본부 주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개혁 포럼>

발제자 민중기 박사, 정성욱 박사, 권연경 박사, 이상명 박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주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개혁 포럼"이 7일 LA 소재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이성우 목사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민중기 박사(디아

스포라 이민교회의 현재적 진단,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미래적 전망(정성욱 박사), 현대 교회의 위기 진단과 해결 모색(권연경 박사),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사회(이상명 박사)가 각각 발제자로 나서 포럼을 이끌어갔다. 발

제가 끝난 후에는 고태형 박사(선한목자교회 담임), 송인서 박사(미주장신대 교수), 이승현 박사(KTS 총장) 등이 논찬에 참여 했다. 남가주목사장로부부합창단(단장 강경근 목사)은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주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개혁 포럼"이 7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님의영광교회서 열려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위기 진단과 직면한 4차산업혁명 속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을 심도있게 다뤘다. 포럼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축 추 수 감사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입생 모집 요강

김창숙 목사

-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 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 학술원 학장 명의의 졸업장 수여함.
- ◆ 과점수료 후 세계로신학학술원을 통해 연정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울동, 워킹,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화, 수, 목, 토요일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학술원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예복부흥신학 신학생 모집

설립자 / 대표	이사장	학장 / 이사	이 사	이 사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	이조성 목사	임순환 박사	정기남 목사	김영숙 집사	김영애 전도사

교 수 진

광영민 교수, 임순환 교수, 김선우 교수, 박형모 교수, 심기석 교수, 박경자 교수, 김성기 교수, 최동준 교수, 김명옥 교수, 모성춘 교수, 윤동훈 교수, 이경우 교수, 김경우 교수, 윤주만 교수, 최혜숙 교수, 김영진 교수, 제갈호만 교수, 한영실 교수, 이환호 교수, 주찬양 교수

과정	수업일	학제
기독교예배 과정	매주 목, 금, 토.	2년 6학기
신학부 과정	매주 목, 금, 토.	3년 9학기
목회대학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2년 6학기
신학연구원 과정	매주(저녁) 월, 화.	3년 9학기
학술원	매주 토.	1년 3학기
찬양연구교실	매주 목.	2년 6학기

※과정 통신으로 교육할 수 있음. **교단 가입 환영**

저희예복부흥신학은

- *교육은 방향 없이 1년 3학기제로 운영합니다.
- *정통 장로교 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교육하고 있습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복)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복총회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정식 회원 교단이며, 본 협의회로부터 신학 교육을 인증 받았습니.
- *총회장 광영민 목사는 본 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공동회장 및 신학위원 회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 *부흥사 및 예복 사역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은 "국제예복부흥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장소: (인천)등불교회, 주소: 인천 광역시 남구 능해길 5(구, 송의1동 441-45) 문의: (사무국장)010-6778-0651, (대표)010-2080-0651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2017 동어

- 선교하는교회
- 사랑하는교회
- 부흥하는교회

당회장 정 대 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 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제13대 총재 여바울 목사

명예총재	총 재	대표회장
하종우 목사	여바울 목사	전진성 목사

부 총 재 이재원 목사, 최점이 목사, 박귀자 목사, 노은총 목사, 임요한 목사, 하성덕 목사, 이춘우 목사

상임 회장 박연자 목사
실무 회장 한시라 목사
감사 단장 조현희 목사
회 개 부요한 강도사
공동 회장 박종만 목사, 김순애 목사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인천광역시 남구주안2동 486-27(2층) 은촌기도원(內) H.P : 010-6327-0191, 070-7518-8195

수도권지역 주택 · 대지 특별분양

전원주택지 1차 택지완료

전원주택 2동 건축, 1동 건축허가, 6동 건축 준비완료

(임야 33㎡ 당 40만원, 약 6600㎡ 매매합)

은행대출 분양가에 70%

여주상수도개설, 전기, 통신(인터넷, 유선방송) 지중화

목회자·성도·일반인 누구든지 노후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여주전원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대지 특별분양(70,680,000만원)

현재 또는 2~3년 후에 건축하실 분을 위하여 대지를 분양합니다.

(대지(100평 - 330㎡ + 도로(14평 - 46㎡) = 합계 114평 - 376㎡)

평당 3.3㎡/62만원 × 376㎡ = 합계 70,680,000만원

목조주택 특별분양

(2층, 99㎡, 1억 8500만원/방3, 화장실2, 거실, 다용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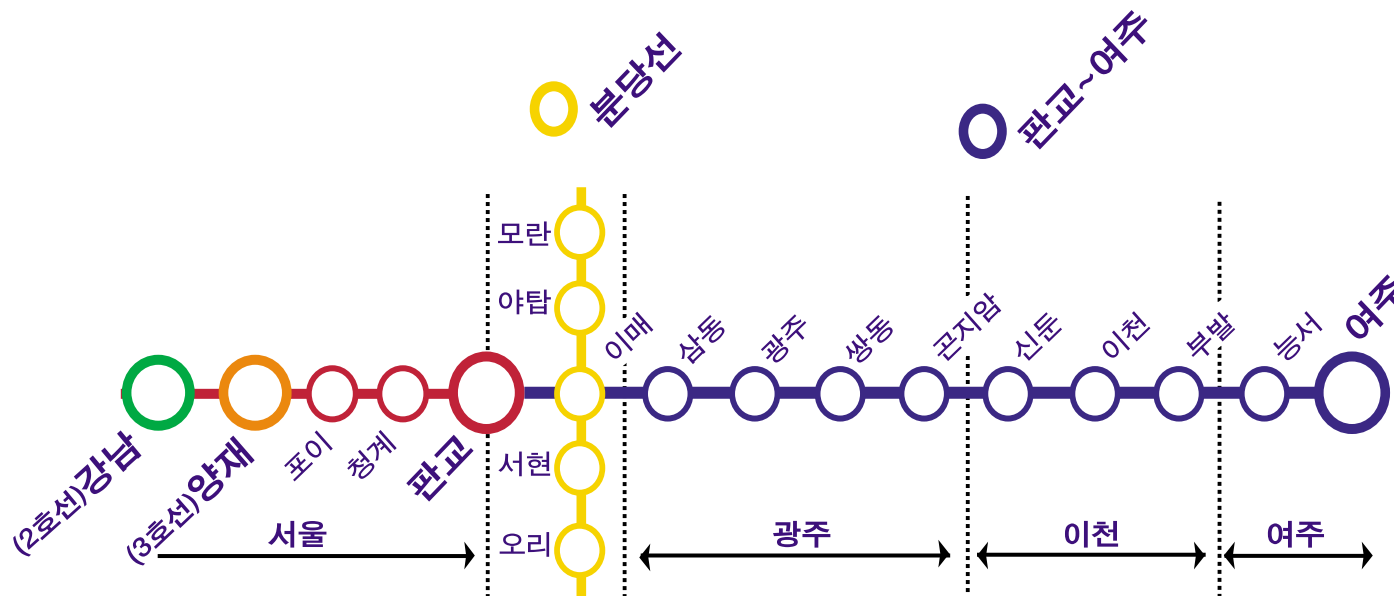
(1층, 72.6㎡, 1억 5500만원/방2, 화장실1, 거실, 다용도실)

주택 99㎡ (1층 72.6㎡, 2층 26.4㎡)

대지 100평 - 330㎡, 도로 14평 - 46㎡, 합계 114평 - 376㎡

교통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 (56.95km) 개통됨
- 대신I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2~3분 소요).
- 강남, 분당에서 대신IC까지 30분.
- 천호동, 구리시에서 대신IC까지 45분.
- ◆ 여주 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 57km) 개통됨.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차량 12분.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 20분(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



I 주 소: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12-4호(초현리 산 48번지)

I 전원주택 홍보 전화번호
010-5468-6574 / 010-3478-6574

I <http://jtntv.kr> (JTNTV방송) 배너광고 중

분양 문의 02) 854-1355



2017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확신

성경: 시편 89:1-4 찬양: 336장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인을 공의로 갚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심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특히 그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심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송하며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목: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

성경: 시편 89:5-7 찬양: 31장

'거룩한 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하늘의 천사들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사(奇事)와 신실을 찬양합니다. '귀능 있는 자들' 또한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며 찬송을 받으실 만한 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가운데서 심히 엄위하시며 그를 둘러 있는 모든 천사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이시기에 우리에게도 마땅히 경외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제목: 하나님의 능력

성경: 시편 89:8-10 찬양: 380장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며,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여호와여, 주는 강하시니이다. 주의 신실하심이 주를 돌렸나이다" 능력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한 신실하심이 충만하십니다. 본문의 라합은 '바다 괴물'을 뜻하는 말로 애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자연만물 가운데서 바다의 흉용함을 잔잔케 하심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

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제목: 진실하신 분

성경: 시편 89:11-14 찬양: 393장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도덕적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편견이나 편협함을 가지고 행치 않으시며 항상 바르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물을 판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또한 피조물을 향해 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거짓이나 속임이나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인 것이 없으시며 항상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제목: 보호

성경: 시편 89:15-18 찬양: 93장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절망적 상황에서 그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힘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빗발치는 적의 화살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평안히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마귀와 악령들과 인간 원수들까지도 물리쳐주시고 또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목: 견고한 팔

성경: 시편 89:19-24 찬양: 312장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견고하며 그의 팔이 그를 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는 또한 그의 원수들을 막아 주시며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는, "원수가 저에게서 갈탈지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고케 못하리이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미워하는 자를 치리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는 또 다윗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이며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실 것이다. 그는 다윗의 부족과 실수를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로 인해 다윗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제목: 구원의 바위

성경: 시편 89:25-29 찬양: 95장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양육하시는 자라는 뜻임과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위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나의 구원의 바위'라는 말은 자신을 죄와 환난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베푸실 그 의의 복된 은혜들에 대해 증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제목: 동일하심

성경: 시편 89:30-37 찬양: 92장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속에는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位)[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이라는 단어는 단수명사로 일차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인 신약교회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위는 해와 달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고 영원히 견고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제목: 주권자

성경: 시편 89:38-45 찬양: 346장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고 그 모든 원수들로 기쁘게 하였으며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그로 전쟁터에 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원수를 힘 있게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도 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를 힘 있게 하셔서 원수를 이기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자이신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노하시고 그들에게 수치와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까닭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증거된 진리입니다.

제목: 믿을만한 분

성경: 시편 89:46-52 찬양: 378장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언급하며 의지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의 인자하심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는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며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믿을 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인생의 해답

성경: 시편 90:1-2 찬양: 235장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고 도적을 방지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십니다. 그 집은 낡아서 재건축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하고 영원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제목: 허무한 인생

성경: 시편 90:3-6 찬양: 135장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며 또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허무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보시기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라는 말은 죽음은 홍수처럼 생의 모든 것들을 쓸어가며, 인생의 복잡다단한 삶을 꿈같이 헛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아침에 뜬 풀과 같습니다. 풀이 자라고 꽃을 피다가 베어지듯이, 인생의 삶과 성공은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제목: 수고로운 인생

성경: 시편 90:7-12 찬양: 134장

인생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또 게다가 그 수고로운 세월도 어

금기를 발리운 두 감람나무는?

(속 4:11-14)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를 천사가 깨우니 마침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하나님이 스가랴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한 것이요.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각성시키는 역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것은 금촛대요, 그 위에 일곱 금관이 있고 금관에 일곱 등불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본 일곱 금촛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금촛대는 계 2장과 3장에서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신 종말의 일곱 금촛대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 금촛대교회 통해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가장 중심 되는 계시를 깨닫습니다. 금촛대교회는 단적으로 말한다면 "금 같은 진리로 살며 금 같은 연단을 거쳐 금기를 받아 순교 통해 금면류관을 받게 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묻기를 "이 두 감람나무(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인가?" 묻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는 계 11:3-4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즉 '두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라.' 두 증인들은 7년 환란 날 1,260일 예언권제로 예언하리라. 이들은 퍼 놓은 작은 책(계 11:2)을 먹은 자들이요,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게 되리라.

여기 퍼 놓은 책은 당초 인봉됐던 요한계 시록의 예언의 비밀이 퍼 놓겼다는 것이요,

목/회/칼/럼



장한국 목사

주시령교회 담임
예장진리총회 총회장
본지 부이사장

종말의 때가 되어 즉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이미 열려진 것으로 봅니다. 이 두 증인들은 사명 끝난 후 100% 순교하게 되므로(계 11:7) 이미 7년 환란이 이르기 전에 순교신앙에 올라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종말의 하나님의 증인 두 증인들이 곧 두 올리브나무인 것입니다.

또 "금기름을 쏟아내는 두 올리브나무"라 했지요. 금기를 발리운 자는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한 것처럼 금기름은 곧 일곱 영을 가리킵니다. 즉 종말의 두 증인들은 일곱 영으로 충만한 받게 될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하여 어두움의 권세의 때인 대환란 날에 능히 철장권세로써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더라.' 주 곁에 서 있는 이들은 주님 즉 영혼 추수하시는 영광의 주 신랑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이 쓰시는 추수사역 감당함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에 속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소진우 목사 2016년-2018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장암동)

2016년 7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3-9 심야특별기도대성회(예복교회)
11-13 모리아교회(조선의목사)
18-21 소망교회(최유식목사)
25-28 에덴금식수양관(양희목원장)
31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016년 8월
10-12 한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5-18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2-25 감람산기(도원)(이목원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9-1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6년 9월
5-8 교단총회
12-17 추석주간
19-23 선교지방문
25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6-28 다사랑교회(방종현 목사)
29 군산열교회

2016년 10월
3-6 에스겔교회(김양선 목사)
10-11 정기(노회)
17-21 임원수련회
23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4-27 새진영교회(설정학 목사)
31-11,2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2016년 11월
5 안양칼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7-9 삼물교회(고정익 목사)
14-16 경천교회(이원정 목사)
17-18 노회지교회(신상)
20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1-23 총회영성대회
28-30 행복예수원교회(마영건 목사)

2016년 12월
4-7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18-24 거룩부흥성회(예복교회)
26-30 은사리교회(최태식 목사)

2017년 1월
2-4 거창성결교회(김성철 목사)
9-12 실목교회(조만희 목사)
16-18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23-28 (인도선교)
30-2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017년 2월
3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6-9 감람산기(도원)(이목원 원장)
13-17 선교지세미나
20-22 초대종만교회(김옥남 목사)
27-1 중동교회(서종표 목사)

2017년 3월
6-10 필리핀 예복교회 헌당예배 및 선교지 방문
봄철 축복 대 심방기간

2017년 4월
3-5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김경환 원장)
9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10-13 오정성화교회(이주형 목사)

17-18 정기노회
18-20 양배교회(정진수 목사)
24-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017년 5월
7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8-12 네팔선교지방문
15-17 주영광교회(지재문 목사)
21-24 사랑의빛교회(오성민 목사)
29-31 초대교회(윤호준 목사)

2017년 6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4-8 빛과소금교회(송영만 목사)
12-16 선교지지역지세미나
18-30 본교회 2주년축신(아대성회)

2017년 7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3-6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10-12 사랑의교회(고정옥 목사)
17-19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24-28 선교지신학여행(세미나)
30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017년 8월
3 안양칼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7-10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1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4-17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1-24 감람산기(도원)(이목원 원장)
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8-31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7년 9월
4-8 은누리복음화협의회수련회(임기호총재)
11-14 교단총회
18-21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5-27 비전교회(김경원 목사)

2017년 10월
2-5 추석주간
9-10 정기노회
16-18 주사랑교회(조연오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30-4 인도지역지방문주간

2017년 11월
5-8 주안중앙교회(박윤순 목사)
13-15 동계부흥성회(예복교회)
19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20-22 열린중앙교회(신동홍 목사)
27-1 필리핀 사역자 컨퍼런스

2017년 12월
4-6 삼물교회(고정익)
11-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18-21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26-29 송구영신을 위한 산상기도

2018년 1월
1-3 양평지역연합성회(회장 홍성장 목사)
8-10 상대교회(황인옥 목사)
14 은천교회(소지영 목사)
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15-18 배방중앙침례교회(임영환)
21-24 안양성문교회(윤노원 목사)
29-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018년 2월
5-8 감람산기(도원)(이목원 원장)
11 천보산기(도원)우정제(위원장)
12-17 설 주간
19-21 점촌교회(김위수 목사)
26-28 실목교회(조만희 목사)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서울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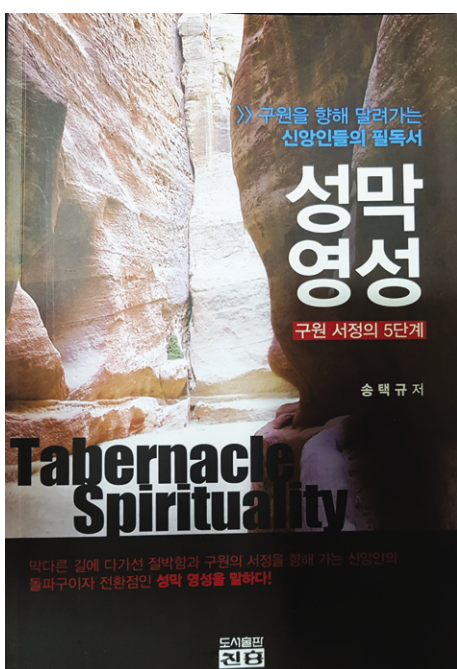
성경으로 돌아가자 「목회자가 나아갈 방향은 ?」

- 일시: 2017년 12월 7일(목)
- 시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 장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4층(제 2연수실)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티모데후서 3:16-17). ”

강사: 송택규 박사



성막 영성의 비밀

성막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비밀과 예배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겸종의 비밀이 있다. 이 모든 비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진정한 성막이신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밝히 드러났다.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에 있다. 성경적, 성막적 구원론으로 돌아가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구원하자.



강사 송택규 박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 주최: 강사 송택규 목사

(미국 로드랜드대학 부총장, 크리스천영성 대표, 시니어타임즈USA 대표
한국 지저스타임즈신문 & JTNTV방송 주필)
(저서 성막영성, 목회자가 나아갈 방향은?)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에게 선착순 100명에게 송택규 박사 저서
성막영성구원 서정의 5단계 시중 12,000원 가는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 주관: 한국 JTNTV, 지저스타임즈 & 언론부흥사협의회

사장 소진우 목사(대표회장), 발행인 정기남 목사(상임대표)

강사: 송택규 박사 약력

1942년 경기도 이천 출생
서울공고 건축과 졸업
한양대 건축학과 및 동 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서울공고 교사, 동양전문대학 교수
민주공화당 훈련원 교수,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전 성업공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근무
평양신학교, 백석대학대학원 졸업
예장 호헌에서 안수, 본향제일교회 개척
평촌지역 개척교회 협의회 회장
안양지역 목회자협의회 부회장
강남노회 부회장
미국 이민
트리니티대 목회학 박사
유인대 철학박사 및 신학대학장, 부총장
로드랜드 교육학 박사 및 신학대학장
샌퍼난도밸리 한인회 이사장
남기주목사회 부회장
크리스천비전 / 미주타임즈 주필
LA 시니어 타임즈 대표
현) 세계 크리스천 영성원 대표
현) 지저스타임즈 & JTNTV 주필

신문방송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176번길 32호

발행인: 010-5468-6574 사무국장: 010-2080-0651 총무국장: 010-2479-7793